

민은기의 클래식 비망록

어쩌다 교수 립스키코르사코프, 배신인가 진화인가

민은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환율이 내리고 주가도 오르는 것을 보니 일단 힘든 고비를 넘긴 것 같아 안심이다. 하지만 지난 6개월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견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선거라는 것이 승자독식과 같은 것이어서 그렇다고는 해도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지.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상대방 흡집 내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있는 일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전 프랑스의 정가도 귀족, 부르주아, 제3계급으로 나뉘어서 매우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예술의 나라여서 그렇까. 특이한 점은 이들이 정치적 이슈를 두고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전, 음악 작품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바로 1753년 이탈리아 오페라 페르골레시의 '마님이 된 하녀' 공연으로 촉발된 부풍논쟁이다.

1기 졸업생 차이콥스키, 훌륭한 멘토
포문은 계몽주의 사상가인 장 자크 루소가 먼저 열었다. 그는 프랑스 오페라의 줄거리가 과장되고 인공적이며 화성이 너무 거창해서 마치 끊이지 않는 소음과 같다고 비판했으며 여기에 프리드리히 폰 그림, 드니 디드로, 장 르 롱 달랑베르 같은 백과사전파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가세한다. 그들의 날카로운 공격은 오페라를 넘어서 부르봉 왕조의 절대 왕권을 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상대 측의 응전도 만만치 않았다. 그 당시의 대표적 작곡가 장 필리프 라모는 장 바티스트 뮐리에 의해 만들어져서 계승된 프랑스 서정 비극 양식을 적극 지지하였고 루이 15세와 귀족과 음악가, 그리고 많은 청중 역시 그를 응원했다.

그러나 뭘니 뭘니 해도 음악을 둘러싼 더 흥미진진한 논쟁은 러시아에서 벌어진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의 충돌이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서구주의자로는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떨친 유명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 안톤 루빈시테인이 꼽힌다. 그는 일찌감치 파리에서 리스트를 사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식 음악 교육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세웠다. 러시아 최고의 작곡가인 차이콥스키가 이 학교의 1기 졸업생으로, 그는 졸업과 동시에 안톤 루빈시테인의 동생이 설립한 모스크바 음악원의 초대 교수로 초빙되며 서구주의자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차이콥스키가 훌륭한 작품을 내놓을수록 슬라브주의자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서구식 교육이 러시아인의 독창성을 저해한다고 믿었던 슬라브주의자들은 서구주의자들을 서양 낭만주의의 아류에 불과하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슬라브주의자 진영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이 "러시아 5인조"라고 불렸던 밀리 발라키레프, 모데스트 무소르스키, 니콜라이 립스키코르사코프, 세자르 쿠키, 알렉산드르 보로딘이다.

이들은 발라키레프를 제외하고 아무도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음악적 열정만큼은 대단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한한 도전과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이들은 엄격하고 경직된 서구식 제도권 음악 교육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독자적으로 음악을 연구해 나갔으며 나름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했다.

보로딘은 운율계 불협화음이 자유롭게 나오는 러시아식 선율을 만들어냈고 무소르스키는 러시아어의 억양과 강세를 살린 러시아 특유의 리듬을 선보

19세기 '러시아 5인조' 작곡가

서구식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슬라브주의자들 "서양 아류" 맹비난

립스키코르사코프, 초빙되자 감격
발라키레프는 "동지에 대한 배신"

40년간 재직, 스트라빈스키 길러내
표제음악 결작 '세헤라자데' 작곡도



발레 '세헤라자데' 무대 디자인.

였다. 무소르스키가 러시아적 서정성을 담아낸 독특한 음악으로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면 립스키코르사코프는 교향시 '사드코'와 교향곡 '안타르'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의 끈끈한 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발단은 1871년 립스키코르사코프가 서구주의자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직을 수락한 데 있었다. 립스키코르사코프는 그동안 서구적인 학교 교육을 반대해 왔지만 별다른 경력도 없는 자신을 학교가 초빙해준 것에 감격했고, 무엇보다 학교라는 직장이 안겨줄 재정적 안정과 명예에 안도했다.

마음이 따뜻했던 보로딘은 친구가 직장을 가지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해 주었고, 무소르스키도 결혼식 들러리를 맡아주며 그의 앞날을 축복했지만, 5인조의 실질적 리더였던 발라키레프는 그것을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동지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5인조를 "강력한 소수"로 추켜세우며 슬라브주의를 옹호하던 유명 비평가 블라디미르 스타소프도 립스키코르사코프를 배신자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로 인해 결국 그와 다른 멤버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서양 낭만주의 음악을 추종하는 서구주의자를 맹렬히 비난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가 되면서 태세 전환한 립스키코르사코프.

하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 대신 립스키코르사코프는 반대 진영의 차이콥스키와 가까워졌다. 아무런 준비 없이 어쩌다 교수가 된 립스키코르사코프,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던 립스키코르사코프는 뜨거운 음악적 열정에 비해 이론에 대한 지식은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오케스트레이션에 관한 천부적인 재능으로 작곡을 해왔으면서도 화성법이나 대위법 규칙은커녕 음정이나 화음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으니 말이다. 이런 그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출신인

차이콥스키는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주었다.

차이콥스키는 립스키코르사코프에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조언했고, 이 조언을 받아들여 그는 3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음악 이론을 밀바닥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한다. 훗날 이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음악원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학습에 몰두했다. 아마도 이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지 않았을까도 싶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는 곧 음악원에서 가장 실



립스키코르사코프가 교수로 재직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력 있는 교수가 되었고, 이후 40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글라주노프, 레스피기, 프로코피예프, 스트라빈스키 등 차세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을 길러냈다. 한편 음악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집필한 교재인 '화성법 실습'과 '관현악법의 원리'는 지금까지도 전공 학생들의 필수적인 지침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립스키코르사코프는 스승 역할에도 충실했다. 1905년, 이른바 "피의 일요일"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학생들도 시위에 나섰다. 그는 교수직에서 해임을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학생들 편을 들기도 했다. 그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심이 깊어질 수밖에.

작곡 실력의 향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립스키코르사코프가 오페라 '5월의 밤'과 '눈 아가씨'를 발표했을 때부터 칭찬을 아끼지 않고 격려하던 차이콥스키. 그는 1887년 립스키코르사코프가 작곡한 '스페인 카프리치오'을 듣고는 월계관을 직접 사서 선물한다. 그리고는 "이 곡은 위대한 걸작이며, 이제 당신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거장이라고 생각하라"며 편지를 썼다고 전해진다.

무소르스키·보로딘 유작 세상에 알려

멘토의 칭찬에 고무된 덕분일까. 이듬해 립스키코르사코프는 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준 작품 '세헤라자데'를 작곡한다. '아라비아의 천일야화'를 소재로 하는 이 관현악모음곡은 음악적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시적 상상력과 창조적인 색감이 더해진 표제음악의 걸작이다.

하지만 그는 성공을 거둘수록 고락을 같이했던 5인조 동인들과 함께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열정 가득했던 무소르스키와 보로딘이 음악가로서 빛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 못내 가슴 아팠던 것일까. 립스키코르사코프는 미발표나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이들의 작품을 하나씩 복원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무소르스키의 대표적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와 교향시 '민둥산의 하룻밤', 그리고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이 편곡 출판된다.

그의 손을 거치면서 무소르스키와 보로딘의 작품들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널리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립스키코르사코프가 이 곡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화성법에 맞지 않거나 촌스러워 수정한 부분이 원작의 독창적인 면모를 해쳤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이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도록 한 립스키코르사코프의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상에는 젊은 날 자신이 걸었던 길을 버리고 이후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립스키코르사코프가 그렇다. 그리고 그런 선택에는 종종 배신이라는 낙인이 찍히곤 한다. 그의 선택은 과연 배신이였을까. 그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으리라. 심지어 그 자신도 말이다. 그럼에도 그가 결코 미워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길을 가면서도 젊은 날의 열정과 동지애를 소중하게 간직했기 때문이 아닐까.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민은기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이론을 전공하고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5년부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음악과 페미니즘' '독재자와 음악' '대중음악의 역사' 등을 주제로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최근에는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시리즈를 집필 중이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 제 보 청 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